

임형철 학우 (BABS 과정)

저는 중학교때 예수님이 어떤 분 이시라는걸 알고, 그 분을 영접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후 사춘기가 찾아 왔고,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아 그 후 약 20년간 세상을 좇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.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채,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며 그렇게 죄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.

그러던 중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 배를 타고 아시아 이곳 저곳을 다니던 중 자연의 질서 정연함과 위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바람이 생겨나는 과정과 하늘 별들의 움직임, 조석및 조류의 변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은 창조주는 분명히 존재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그 확신은 차츰 현실이 되어 2016년 9월 11일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.

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 가족의 소개로 태국의 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아 태국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, 태국 국민은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한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그 말에 저는 그들이 너무 불쌍함을 느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 때 그 태국 선교사님은 WMU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 하고 계셨는데, 그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WMU 유학생이 되기로 결정 하였고,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습니다.

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 할 수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, 선교지로 나가기 전 WMU에서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.